**믿음과 의심 /그발 앞에 엎디어 p37, 썬다 싱**

****

가치의 여하를 막론하고 하나님이 사람들에게 부여한 권능이나 은사들은

그것을 활용해서 써야만 한다.

그렇지 않으면 그것이 점점 퇴화하여 마침내는 없어져 버릴 것이다.

믿음도 살아계신 하나님께 접붙여 있지 아니하면

죄로부터 자극 받아 부서져서는

마침내는 의심이라는 형태로 변질되어 버릴 것이다.

가끔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다.

"만약 그 의혹이 풀려진다면, 나는 믿을 것이다"

그것은 마치 아픈 환자가 자신의 상처를 의사에게 보이기 전에

통증을 없애달라는 것과 같다.

그것은 아주 미련한 일이다.

몸의 통증은 병으로 인한 것이니,

그 아픈 병이 나으면 자신의 통증도

자연스럽게 없어지는 것이다.

이처럼 죄로 인하여 하나님과 사람과의 교통이 끊어지게 되면

영의 통증인 '의심'이 일어난다.

그럴 때는 하나님과의 교제 부분에서의 문제를 바로 잡을 필요가 있다.

그러면 나의 신성과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의심은 사라지게 된다.

그럴 때 놀랄만한 평강이 그에게 찾아오게 된다.

그 평강은 이 세상이 줄 수도 없고 또한 그 어떤 것도 빼앗아 갈 수도 없는 것이다.

이처럼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서 파멸의 나락에 떨어진 불쌍한 사람들을

다시금 하나님 아버지와 연결시키기 위해서

사람의 모습인 육체를 취하였었다.

이것은 하늘 나라에서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행복을 얻게 하려 함이다.

Tags

회개 청종 믿음 의심 내주